東亞日報

東光學校許可

勞働價値說에對한批評 (十)

체르캇슈 (七)

(꼬-리끼-) 瞬星生

留置場에서 絶食

유명한의병대장허위의아우 / 동대문서에서밥을굶는다고 / ◇경찰서에서는사실을부인

일즉이의병대장으로유명하든허위(許蔿)가잡히어사형을바든후 그의동생허로(許蘆)는칠십이오 회로령도 도라보지아니하고 남만주각디로 도라다니면서 배일사상을고취하고 일변 독립군을조직하야 조선내디를 침입코자하다가 군자금이부족하야 일이뜻과갓치못한고로 조선내디로드려와 군자금을모집코자하든중 그의 부하가 귀족리모(李某)를속히어 상공주식회사(商工株式會社)를만든다하고 수만원을 쓰려내이어 그군자금에 쓰고저하다가 필경발각되야 허로까지 동대문경찰서에 톄포되얏는대 허로는무슨까닭인지 경찰서원의뭇는말에한말도 대답하지아니하고 다만녯날백이(伯夷)와숙제(叔齊)는은(殷)나라가망하고련하가주(周)나라의세상이되매 더러운 주나라의곡식을 먹지아니하고 수양산(首陽山)에드러가서고사리를먹다가 죽엇는데 나의나히임의 칠십이오 회복하려든사직도 복치못하얏스며 오늘날 너희에게잡혓슨즉 엇지너희가 주는음식을먹으라고 몃칠이래로 음식을먹지아니하고 굴머죽고자 함으로 경찰서에서는 여러가지수단을써서 밥을먹이랴 하얏스나 거절하고 먹지아니하야 죽을지경에이르럿다는 풍설이 잇는대 이에대하야 동대문경찰서 고등계주임은말하되 그가 경관의심문에 대답을잘하지아니하고 자긔는 나히만흔사람이라 굴머죽어도관계치안타고혹한두끼니식을굴믄것은 사실이나 아조굴머서죽게되얏다함은 전혀 사실이 업는일이오 그의본적디가 대구(大邱)임으로 칠일밤차로 대구로보내랴하오 하며 극구변명하더라

面民의 利害를 無視

강서군보림면관포리빅성이 / 면당의잘못을총독에게호소

평남강서군보림면관포리(平南江西郡普林面觀浦里) 백성 수백명이 그동리뒤에잇는서학산(棲鶴山)을 동리사람의 소유로 찻고자하야 신원서(申冤書)를 도텽에데출하얏다함은임의보도한바인대 그후 도텽에서는 아모소식이업고 면당은 수목을 마음대로채벌함으로 백성들의 불평은더욱심하간다는대 요사이 그동리인민들은 다시신원서를 만들어총독부(總督府)와 평안남도텽에 데출하얏는바 그내용은다음과갓더라(평양)

(전략)본리에잇는 서학산(棲鶴山)은 우리백성들의 수십대사라오는 땅이오 수십대 선조로부터계속하야 천여분묘(墳墓)가잇는곳이라 수목을배양하야 자자손손히 대대로 상속하옵더니 (中略)본면 서학리 김광하(本面棲鶴里金光河)가 말하기를 지금은 수목이업는산림은 국유산으로되는데 우리서학산은 주위가 삼십여리나되는 큰산인대 지금 일본사람이 이산을어드려하는중이라 만일이 산을 일본사람에게 임대한다하면 이산밋헤잇는 우리백성들은 권혀 부지할수가 업스며 또한이와갓치 큰산을각각개인이 측량하야 대부(貸附)을맛기는도저히어려운일인즉백성들의 도장만찍어나에게주면 산림회(山林會)를 조직하야 가지고 내가대표자(代表者)로 대부를맛하가지고 각각난호게하자하옵기로 우리백성들은 그말을올케녀이고 일케히 도장을찍어주엇더니 필경대부된땅은 서학산권부가아니오 다만집뒤에 저는산뿐이라 이산은 순권한개인 김광하의 산인것을 말로인하야 공동산으로된것도 잘못된일이라 그럼으로 재판까지라도하랴고 하는차에 본면당(面長)이 우리동리에와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대부료(貸附料)만 내이고 수목만 잘배양하면 관텽(官廳)에서 다시 측량하야 양여(讓與)까지라도한다하옵기 대부료도 각각 수삼년 면소에밧치고 묘목(苗木)도 칠백주를심엇더니 대정륙년에 김광하가 무슨연고로그리함인지 우리백성들의 승락도업시 면소에 양도(讓渡)하얏다하고 면산(面山)이라하며 모범림(模範林)이라하얏나이다(中略) 대정칠년도에 면당이 주민(住民)의사정은 도모지 도라보지안코 다른동리백성들을 청하야다가 우리

빅성들의

수십대 권래하며 배양하야노흔 수목일만여주를 채벌하야 노흐니 산도갑작이 독산(禿山)이되고 말뿐아니라 산밋헤 백성은 채신(採薪)할곳이 권혀업시되오니 지원절통한일이 여긔서더한일이 어대잇사오릿가 (中略) 수백년권래하던 삼림을일조에 멸망케하오니 산밋주민 삼십여호 수백명인구의 주소하옵 보적동(普積洞)이 텰텬통디(徹天慟地)하올던차에 면장이 우리동리에와서 돈삼십원식 주고 거리에서 부르짓는광도촌일부(道村一部)인민은 집을물러 육년동안 을 우리동리에 귀부하고 한석보(韓錫保)한석진(韓錫鎭)에게 대하야는특별금으로 백원붙 줄터이니 그만그리지말나 하나이다 우리인민의 수십대나려오는 분묘가잇고 저々권려하며 간수하는뫼을 돈으로써 밧굴수가 잇겟슴닛가(략) 면장이 무슨관계로 백성의보 ...

調査委員出發

라경석씨를특별히파견 / 신석현사건조사회에서

일본신석현(新潟縣)에서 조선인동자를 학살하얏다는 사건에대하야 조선인각사회의 발긔로 신석현사건조사회를 발긔하고 집행위원십인을 선뎡하얏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륙일오후세시에 시내견지동 신생활사(堅志洞新生活社)에서 집회하야 위원회를열고 협의한결과 위원당은 박희도(朴熙道)씨로 선뎡하고 림시사무소는 인사동로동공제회(仁寺洞勞働共濟會)로뎡하얏스며 그사건을 조사하기위하야 몃명을특파할터인대 먼저 라경석(羅景錫)씨가 작칠일 오후일곱시십분에 출발하얏더라

姜信昌等은 執行猶豫三年

每坪七石의 延白暴雨

년빅평야홍수 농사손해다대

郵便遞送杜絶

一家五口慘死

六時間의 大停電

軍隊赤化宣傳團

海港學生 告別演奏

主謀者는公判에

赤宣傳檢擧中 警官이 窃盜질

公金橫領에書記

滯納者에 債權差押

獄中에서呻吟

路上에서强奪

奉天에 宣傳機關

魔醉劑를使用

二名轢死

仁川商家의公休

安奉鐵道不通

夫婦間不和로

牛車에轢傷

濁流中에屍體

開城學生大運動

金堉材庭球團

車馬에日射病

李元烈氏出獄

怪疾豫防活動寫眞

天氣豫報